

한국뇌연구원, 부산대 의대, 정보의생명공학대 및 양산부산대 병원과 각각 MOU 체결

- 25일(목) 뇌질환 극복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한국뇌연구원(원장 서판길)은 25일(목) 부산대 의과대학(학장 김치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학장 이기준) 및 양산부산대 병원(원장 김건일)과 뇌질환 극복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5일(목) 오후 1시 반, 양산부산대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에서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주체로 연구기관, 대학, 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뇌질환 원인규명과 치료기술 개발 등 공동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뇌과학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뇌연구원은 부산대 의대, 양산부산대병원 등과 함께 ▲ 혁신적 뇌연구 주제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 ▲ 학연과정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등 학연 협력 활성화, ▲ 치매 등 다양한 뇌질환 관련 중개연구기반 제공 및 협력, ▲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MOU체결을 기념하여, 행사 직후 「한국뇌연구원 X 양산부산대 병원 공동 연구 심포지엄」 개최하였으며, 한국뇌연구원 천무경 박사, 정윤하 박사와 양산부산대병원 전종근 희귀질환센터장, 정나연 신경과 의사, 이나연 줄게시포융합연구센터 박사가 각각 퇴행성 뇌질환, 희귀

뇌질환 현황과 극복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토대로 동남권 지역 연구기관, 대학, 병원과 더욱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사회의 주요 현안인 뇌질환 극복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하며, “임상 기반의 선순환 중개연구와 뇌공학 응용으로 뇌산업 활성화 및 미래 뇌 과학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 (좌측부터)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이기준 학장,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 양산부산대병원 김건일 원장, 부산대 의대 김치대 학장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